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29.(화) 06:00 < 11.29.(화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28.(월)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	책임자	과 장 송현주 (044-203-4330)
		담당자	사무관 홍길표 (044-203-4334)

국내 최초 직류기반 전기추진 선박 '울산태화' 명명식 개최

- 전기추진·스마트 항해 등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자재 90% 이상 적용 -

- 향후 실증 테스트 베드, 해상관광 등 다목적 활용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, 이창양)는 11.29일(화) 현대미포조선(울산)에서 건조된 **국내 최초 정보통신기술(ICT) 융합 직류기반 전기추진 스마트선박**인 '**울산태화**'**호의 명명식**을 개최하였다.

* (명명식) 선박 건조 후 그 선박의 이름을 부여하며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행사

< '울산태화'호 주요제원 및 특징>

사업비	ㅇ 총 448억원 (건조사 : 현대미포조선)
사업기간	ㅇ 2019년 ~ 2022년 (4년)
무게/정원	ㅇ 약2,700톤/ 정원: 300명 내외
크기(m)	ㅇ 89.1(길이)x12.8(폭)x5.4(높이), 4층
속도	ㅇ 16knot(최대), 14knot(정속)
운영기관	ㅇ 울산광역시 (울산정보산업진흥원)
특징	ㅇ 국내 최초 직류기반 하이브리드(LNG, 경유, 배터리) 전기 추진선
핵심 기자재	①(**이중연료 엔진시스템**) LNG, 경유 중 선택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 엔진 시스템 ②(**DC 전기추진 시스템**) 배터리 연계 직류기반 복합동력원 전기추진시스템 ③(**통합제어시스템**) 전력·에너지 관리시스템 및 전기추진 제어시스템의 통합관리 ④(**스마트솔루션**) 선박·운항 정보를 실시간 수집·저장·분석 → 최적 항로 도출 → 충돌방지· 자동 이/접안 지원 등 항해통신 ICT기술 접목

□ '울산태화'호는 정부(산업부, 울산시)가 지난 '19년부터 올해까지 **4년간 총 448억원**을 투입하여 건조한 **국내 최초** 직류기반 전기추진 선박으로,

ㅇ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자재의 실증, 해상관광 등 **다목적으로 활용**이 가능하며, 향후 선박의 운항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**추가 연계 비즈니스**의 개발도 염두에 두고 건조되었다.

□ '울산태화'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.

① 국내 기술로 개발된 **최초의 직류기반 전기추진 시스템**이 적용된 선박으로 교류방식 보다 **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**시켰고, 대용량 변압 설비가 불필요하여 관련 기자재 중량을 **약 30% 경량화**시켰다.

* 전기추진선은 ①고효율, ②경량화 등의 장점으로 교류(AC)에서 직류(DC) 기반으로 발전 중

② 선박 통합제어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* 35개 중 32개가 **국내**에서 **개발**된 **기술**을 적용하여 국내 첨단기술 역량을 확인하였다.

* 이중연료(LNG·경유) 발전 시스템, 선박 통합제어 시스템, 스마트 운항 보조 시스템 등

③ 선내에 해상 실증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**향후 다양한 기자재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**하도록 하였다.

- 아직 선박이 운항 전이나, 현재 80개 업체가 135종의 기자재에 대한 실증을 희망하는 만큼 향후 **기자재 테스트의 첨병**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④ 선내 주요 기자재에 약 2,200여 개의 센서를 부착하여 모아진 선박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**기자재 업계의 사업화를 지원**하는 등 **디지털 전환을 선도**할 전망이다.

□ **주영준 산업정책실장**은 "울산 태화호는 **국내 최초의 직류기반 전기추진선**으로 국내 개발된 **기자재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**라는 점을 강조하며,

ㅇ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중인 전기추진선의 시장진입을 위하여 **핵심 기술개발 및 기자재 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**을 아끼지 않겠다."고 밝혔다.

【별 첨】 울산태화호 명명식 행사 개요 및 선박 조감도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별첨 1 명명식 개최 계획

□ 행사개요

○ **(일시)** ‘22. 11. 29(화) 10:30 ~ 12:00 (약 90분)

○ **(장소)** 울산 현대미포조선 5안벽 (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)

○ **(참석자) 산업통상자원부**, 울산시장, 울산시 의장 및 의원, 한국조선해양·현대미포조선·현대글로벌서비스 등 100여명

○ **(주요내용) ‘울산태화’호 명명식**

* (명명식) 선박 건조 후 그 선박의 이름을 부여하며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행사

[울산태화호(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) 사업개요]

○ **(사업기간)** ‘19. 9. ~ ‘22. 12. **※ 선박 건조기간 : ‘20. 6. ~ ‘22. 11.**
○ **(선박제원)** 무게(2,700톤), 정원(300명), 크기(89.1m×12.8m×5.4m, 4층)
○ **(선박특성)** 국내 최초 직류기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
○ **(주최/주관)** 산업통상자원부/울산광역시·울산정보산업진흥원 ※ 현대미포조선 건조
○ **(총사업비)** 448억원(산업부 233억원, 울산시 215억원)

□ 행사 세부일정(안)

시 간		내 용	비 고(장소)
10:30 ~ 11:20	50’	○ **명명식** - 개회 및 국민의례 - 기념사, 명명&Axing - 기념 촬영 - 샴페인 브레이킹 - 버튼 세레모니	현대미포조선 제 5안벽
11:20 ~ 12:00	40’	○ **선상 행사 및 투어** - 소개영상 시청 - 본선 투어	‘울산태화’호

* 행사장 출입시 사전 등록 필요

별첨 2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‘울산태화’ 호 조감도





